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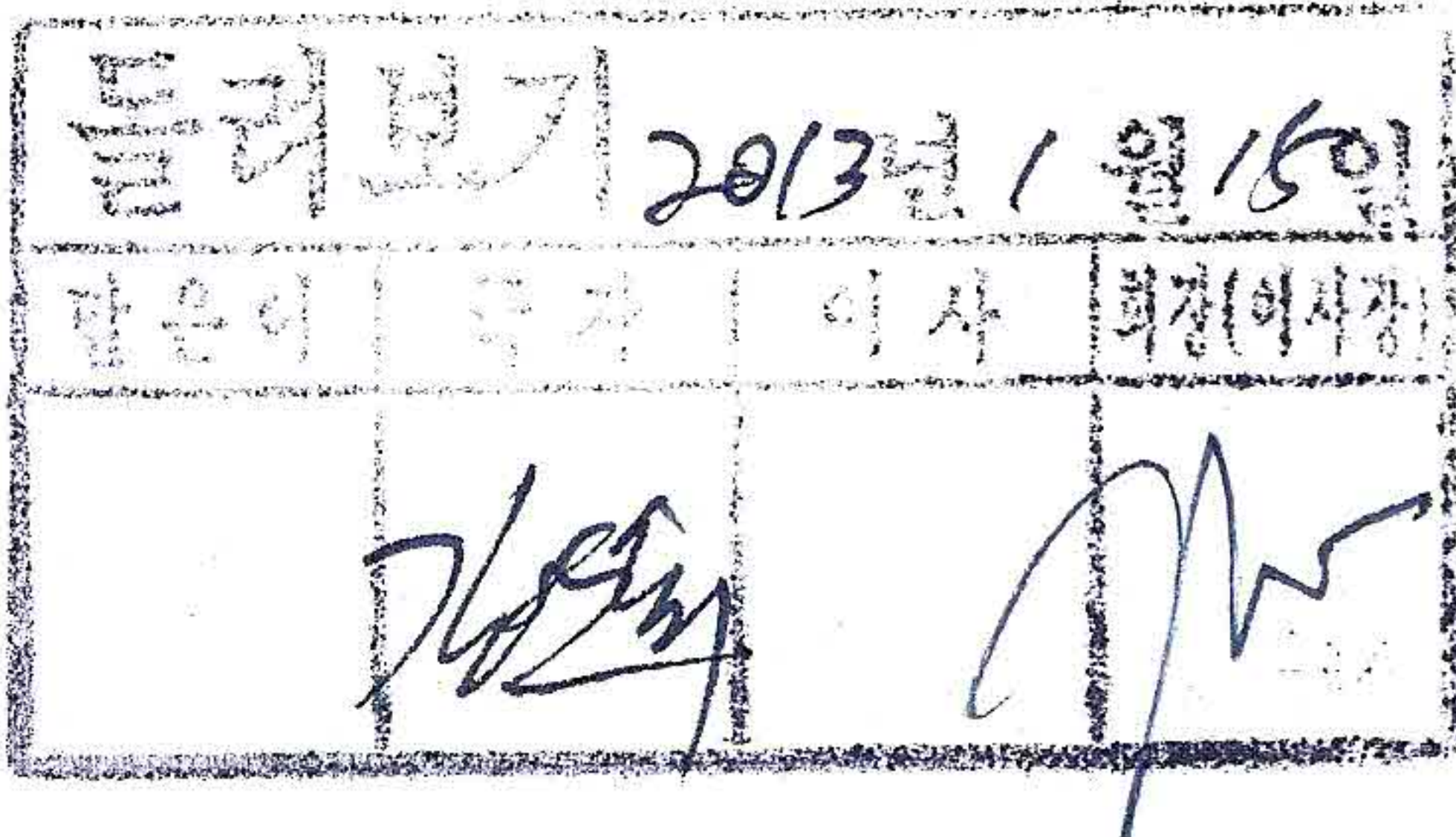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수신 한글학회 회장(김종택) 귀하
(경유)

제목 광화문 현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1. 한글학회 한글2013-01호(2013. 1. 2)와 관련입니다.
2. 귀 학회에서 광화문 현판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붙임 : 답변서 1부. 끝.



문 화 재 청



주무관 심유신

시설사무관 오명석

궁능문화재과 전결 2013. 1. 14.
장 최이태

협조자

시행 궁능문화재과-134 (2013. 1. 14.)

접수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www.cha.go.kr

전화번호 042-481-4774 팩스번호 042-481-4709 / sysbb@korea.go.kr

/ 대국민 공개

한글학회 질의에 대한 답변

- 광화문 현판 글씨 선정 관련 -

-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때마다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압도적으로 한글현판을 선택하였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 ?

(답변)

-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귀 단체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에서 광화문이 경복궁 복원 원칙에 따라 고종 중건 당시 모습으로 원래의 자리에 복원되었으므로, 광화문 현판도 경복궁 복원 원칙의 큰 틀 안에서 고종 중건 당시의 현판 글씨인 한자로 하여야 한다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사회 각계각층 그룹별 여론수렴 결과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한글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고,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의견수렴에서는 문화재 원형복원의 원칙이 지켜져 한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여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결과를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여 최대한 심의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경복궁 복원 원칙에 따라 현판글씨가 한자로 심의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청이 주최한 공청회와 토론회에 정작 주최자인 문화재청장은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음. 이는 직무유기인가 처음부터 계획된 요식 행위였기 때문인가 ?

